

## 직장에서 '거룩한 부수기' 만들기 CREATING 'HOLY DISRUPTION' IN THE WORKPLACE

By Chris Simpson

'모범 사례(best practices)'는 리더십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 모범 사례는 효율성을 제공하고, 제품 개발에 불필요한 비용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며, 앞서간 이들의 축적된 지혜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와 마찬가지로 업계 표준 또한 구조화된 틀을 제공함으로써 전문가들과 조직들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역자주: '모범 사례' Best Practices 란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해 경영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수단임이 검증되어,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절차 또는 지침을 의미한다.)

"Best practices" have long been prized in leadership. They offer efficiency, eliminate unnecessary reinvention, and leverage the accumulated wisdom of those who have gone before. Likewise, industry standards provide structured frameworks – enabling professionals and organizations to operate with greater clarity and consistency.

나의 첫 직장인 미국 비밀경호국에서 일했을 때 나는 이러한 것의 가치를 빠르게 깨달았다. 비밀경호국은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제목 아래 자체 신조가 아주 뚜렷했다. 이 기준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순간에 나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상황이 혼란스러울 때나, 어수선해질 때 나에게 안도감을 주는 일종의 가로등 역할을 해주었다.

Early in my career with the United States Secret Service, I quickly learned the value of such structures. There was a straightforward ethos – *"the way we do it."* These standards created stability in moments of uncertainty, offering a series of 'street-lamps' to guide me when times became hectic, if not chaotic.

그러나 여전히 한 가지 중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 수익성과 효율성 면에서는 뛰어나지만, 하나님의 뜻과 크게 어긋난다면 어떻게 할까? 성경은 이러한 딜레마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막 들어가려는 때에, 다시 말하면 세상 기준에서 보면 나름 안정된 시스템과 제도를 가진 민족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경고하셨다.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될까 하노라"* (출애굽기 34:12)

Yet a crucial question remains: What happens when "the way we do it" is profitable and efficient – but profoundly misaligned with God's purposes? Scripture speaks directly to this tension. As Israel prepared to enter the Promised Land – to engage a people whose practices and systems seemed to "work" by the world's standards – God warned Moses on Mount Sinai: *"Take care, lest you make a covenant with the inhabitants of the land to which you go, lest it become a snare in your midst"* (Exodus 34:12).

아무리 혁신과 성과로 가득한, 실력으로 평가되는 시장이라 해도, 올무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대단한 세계 경제 시스템들도 여러 면에서 종종 인간의 존엄성이나 하나님의 의로움과 무관하게 움직인다. 이러한 시스템은 주로 이익, 효율성, 성장이라는 차가운 지표에 의해 작동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기반이 되지 않는 그러한 시스템에서 부패와 착취, 우상숭배는 결코 드문 얘기가 아니다. 비록 '모범 사례'라는 이름 아래 운영된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For all its innovation and achievement, the marketplace is not immune to snares. Global economic systems – remarkable in many respects – are often built without reference to the dignity of the human person or the righteousness of God. They are driven primarily by the cold metrics of profit, efficiency, and growth. And where God's character is not the foundation, corruption, exploitation, and idolatry are never far behind, even when operating under the banner of "best practice."

그리스도인 리더들에게 분별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주변의 기준을 비판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모든 관행, 정책, 그리고 협력 관계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 말씀의 진리에 비추어 검증되어야 한다.

For Christian leaders, discernment is not optional; it is essential. As a people set apart by God, we cannot *uncritically* adopt the standards around us. Every practice, policy, and partnership must be measured against the character of Christ and the truth of His Word.

그러나 분별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시내산에서의 부르심은 그 이상을 요구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은 단지 타협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 자체를 적극적으로 바꾸라는 것이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출애굽기 34:13). 이것은 전문 직업인에게는 단순히 개인의 정직성을 넘어, 제도 변화에 도전하라는 소명을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인 경영자, 기업가, 그리고 전문 직업인들은 하나님의 정의, 아름다움, 진리를 반영하는 행동을 실천하고 또 그런 조직을 세워 나가는 혁신의 도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But discernment alone is not enough. The calling from Sinai goes further. God's instruction to His people was not merely to avoid compromise, but also to actively reshape the environment: *"You shall tear down their altars and break their pillars..."* (Exodus 34:13). In the professional realm, this is a summons not only to personal integrity but also to institutional transformation. Christian executives, entrepreneurs, and professionals are called to be agents of renewal – advancing practices and building organizations that reflect God's justice, beauty, and truth.

다시 말하면 우리는 '탁월성'에 반기를 들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탁월성의 기준을 다시 세우라는 부름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시장을 떠나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시장을 새롭게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개인의 제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히브리서 11:10)을 바라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부수기**이다. 나는 당신이 이것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기를 기도한다.

We are not tasked with rejecting excellence; we are called to redefine it. We are not called to abandon the marketplace; we are sent to redeem it. We are not called to build private empires; we are invited to steward influence for the sake of God's Kingdom. As the writer of Hebrews reminds us, we seek *"the city that has*

*foundations, whose designer and builder is God"* (Hebrews 11:10). This is the work of **holy disruption**, and I pray you are ready for it:

- 의로움을 바탕으로 탁월하게 운영
- 겸손을 바탕으로 지혜의 리더십 발휘
- 사랑을 품은 권위로 세워 가기
- To operate with excellence shaped by righteousness.
- To lead with wisdom governed by humility.
- To build with power directed by love.

## 묵상과 토론

### Reflection/Discussion Questions

1. 직업상의 일과 관련해서 그 일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지 아닌지 고민하지 않은 채 '당연한 일' 또는 '당연한 관행'으로 받아들인 것들이 있나요? 그것은 어떤 것들인가요?  
What areas of your professional life have you accepted as "normal" without considering whether they align with God's character?
2. '모범 사례'가 단순히 효과적인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분별하는데 어떤 기준들이 도움이 되나요?  
How can you discern whether a "best practice" is merely effective or truly godly? What criteria can guide that discernment?
3. 기존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거룩한 부수기'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쉬울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룩한 부수기에 동참하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Why might it be easier to conform to existing standards rather than engage in the work of holy disruption? What holds us back?

4. 당신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영역에서는, 단순히 기존의 방식에 순응하기보다 혁신이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나요?

Where do you see opportunities in your sphere of influence to lead cultural renewal or transformation, rather than simply operating within the status quo?

※참고: 성경에서 이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아래구절을 참고하세요.

NOTE: If you have a Bible and would like to read more consider the following passages:

**미가 6:8; 잠언 11:1; 마태복음 5:14-16; 로마서 12:2; 골로새서 3:23-24**

Micah 6:8; Proverbs 11:1; Matthew 5:14-16; Romans 12:2; Colossians 3:23-24

- **(미가 6:8)**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 **(잠언 11:1)**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 **(마태복음 5:14-16)**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 **(로마서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 **(골로새서 3:23-24)** **23**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 이번 주 도전

### Challenge for This Week

당신의 리더십을 점검해 보세요. 비즈니스 오퍼나 전문 직업인으로서 당신의 삶에서 다음 중 한 가지 영역, 예를 들면, 채용 과정, 고객과의 협업, 성공의 기준과 같은 영역 중에 한 가지 영역을 선택하고, 그 영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 보세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영역을 어떻게 손을 봐서 비록 작지만 의미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정의, 지혜, 은혜를 반영할 수 있을지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세요.

Audit your leadership. Identify one area of your business or professional life - perhaps a hiring process, a client engagement, or a standard of success – and ask: *Is this aligned with the character of Christ?* If not, prayerfully consider how you might begin to reshape it, even in small but meaningful ways, to reflect God's justice, wisdom, and grace.

그런 다음에 그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동료, 멘토, 혹은 CBMC 팀의 구성원들을 초청해서 함께 해보세요. 단순히 격려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별하는 과정에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점검 과정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성경에서 말하는 통찰과 지혜로운 조언, 그리고 함께 돌아봐 주고 붙들어주는 관계를 통해 당신이 더 신실하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청해보세요.

Then, invite others into the process. Engage a colleague, a mentor, or members of your CBMC team – not just to encourage you, but to help you discern. Ask them to speak into your audit, offering biblical insight, wise counsel, and shared accountability as you seek to lead more faithfully.

거룩한 부수기는 제도를 통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오픈해서 점검 받고, 정련되며,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됩니다.

*Holy disruption does not begin with institutions. It begins with men and women willing to be examined, refined, and set apart for the glory of Christ.*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저 비즈니스 시장에서 성공하는 리더가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영향권 아래 있는 모든 결정과 기준과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가치를 드러내는 리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익을 내는 때는 지나가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은 영원할 것입니다.

May we, by God's grace, be leaders who not only succeed in the marketplace, but who point – through every decision, every standard, and every practice under our influence – to the surpassing worth of Jesus Christ. Earnings will pass. Christ's glory will not.

※출처: **CBMC INTERNATIONAL**

※번역 및 편저: 서진희 <기독교전문 서적 번역가, 제 21 회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 번역, 영어프렌드 미국원어민 온라인 어학원 대표>